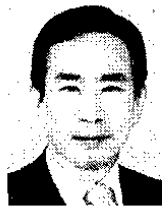


동계조직위 사무총장에 여형구 전 국토부 2차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여형구(56·사진)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내정됐다. 김기홍 조직위 사무차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월례기자간담회를 열고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을 조직위 사무총장에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밝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차장은 “그동안 박영진 조직위 기획행정부위원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으나 올림픽 개막을 2년 정도



남긴 시점에서 총력준비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석인 사무총장을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 내정자는 대전고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1980년 기술고시 16회로 공직에 입문, 건설교통부 신공항 개발과장, 신공항 계획과장, 교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교통분야 전문가다. 서울=유병욱기자

“도 레미콘업체 포화... 덩핑에 품질 저하 우려”

이성열 도 레미콘조합 이사장 “공장 가동률 12.6%뿐... 증량제 도입” 주장

도내 레미콘업체의 포화로 지자체의 레미콘 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열 도 레미콘조합 이사장은 26일 “도내 레미콘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3개 공장이 가동 중으로 이는 서울·경인, 경북에 이어 3번째(12.6%)로

많은데 전국 총 출하량은 4.3%에 불과하다”며 “연간 가동률도 12.6%에 그쳐 극심한 공급 과다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에도 올해 레미콘 공장의 신규 설립은 계속된다”며 “산업 특성에 따라 품질보다는 가격 위주

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동률 20% 미만에도 무분별한 신규 공장 증설이 계속될 경우 덩핑 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가 나타날 것”이라며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레미콘 발주량을 파악해 증량제 도입 등 산업합리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건설업종 공시원가 공개 논란

내년부터 건설업계의 공시원가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6일 도내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공사원가 공시 등을 담은 건설계약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추정 총계약 원가△직전회계연도 말 이후 원가의 변동액·변동비율△누적발생 계약원가△진행률△상손실△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미청구공사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찬 “부실공사·편법 증액방지 효과 기대”

반 “과도한 규제로 영세 업체 수주 불리”

개정안은 건설업종에 대한 재무정보의 신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방지와 편법 공사비 증액 방지 등의 이유로 공사원가 공시를 찬성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공사 원

가가 공개되면 무엇보다 편법 공사비 증액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원가율 손익 등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영업비밀이 발주자와 경쟁사에 노출돼 수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또 공사별 원가 공시 등은 국제회계 기준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국내에서만 적용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영세한 도내 건설업체의 경우, 해당 내용들이 공개될 경우 수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공사원가를 개정안처럼 세밀하게 공개되면 영세한 도내 건설사들은 수주 경쟁에서 더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강릉 차량기지 공사 1330억원 발주 임박

철도시설공단 입찰공고 예정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강릉 차량기지 건설공사’가 조만간 발주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주~강릉 철도 건설 강릉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조만간 입찰 공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강릉 구정면 덕현리 일원에 건설된 강릉차량기지의 총 사업비는 1330억원이다. 30만㎡규모에 종합관리 14개 동과 기

계설비, 검수장비 시설 등이 들어선다.

강릉차량기지는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설 중인 원주~강릉 철도건설 운행열차와 동해안 축연계노선 운행 차량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필수시설이다.

한편 강릉 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지난 7월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강릉 구정민 주민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안은복